

독서에 대한 흥미 높아자

제물포중학교 도서관 '독서 캠프' 개최



제물포중학교(교장 장진호) 도서관은 "2016학년도 독서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독서 캠프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에 이바지하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11월 21일~25일까지 5일간 독서 캠프 주관으로 정하고 매일 방과 후 시간에 독서 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주일을 시끌벅적 독서 축제장으로 준비했다.

월~금요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학생들 각자의 흥미와 관심, 시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학생 및

참석 독서 캠프 프로그램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적인, 호응도를 높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월요일에는 이번 독서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 전원이 '독서 캠프' 개최식을 했다. 개최식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독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교감의 독서 캠프 개최 선언에 이어, 독서 생활화를 약속하는 학생들의 독서 선언식을 했다.

독서 선언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앞으로 1년간 자신이 읽을 독서 목표량을 스스로 정해 약속하고, 향후 자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소정의 선물을 도서관에서 시상하도록

해 학생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개최식에 이어 '책 속의 보물찾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곳곳의 책 속에 숨겨진 '보물 열쇠' 카드를 찾아 그 책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보물을 열면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보물을 줄 수 있는지를 재미와 함께 깨닫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생활권에 도서관 찾은 행사가 마무리됐다.

화요일에는 강연과 국토탐방 발표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강연은 이병국 시인을 초청한 '시를 읽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학생들에게 시전에 주어진 시를 읽고, 시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도서관 주관으로 1학기에 진행된 국토탐방의 발표회가 이어졌는데, 학생들에게 국토탐방의 결과를 홍보하기 위해 국토탐방 결과 프리젠테이션, 사진콘텐츠, UCC 영상 시청 등으로 이어졌다.

많은 학생이 내년도 국토탐방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매우 컸다고 판단된다.

수요일에는 '친구에게 책 읽어주기' 대회가 진행됐다. 10명의 대회 참가자 학생은 자신이 평소 읽은 책 중 감명 깊었던 책을 선정하고, 그 중 일부를 독해 학생들 앞에서 낭독하고 선정 이유와 소감 등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관람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낭독한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용성 기자 as@

미래 여성과학자 배출 산실로...

인천여중 영재학급 창의산출물 발표대회·수료식



인천광역시교육청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지정된 인천여중학교(교장 김영주)는 수학·과학 영재학급의 창의 산출물 발표대회와 수료식이 12월 6일 인천여중 뮤즈홀에서 열렸다.

2016년 3월 다단계 선발전형을 거쳐 선발된 무학초대 20명의 학생은 1년간 수학, 과학의 심화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과 현장체험학습, 창의 산출물 발표대회 등 70시간의 수업을 받고 수료를 했다.

수료식 전에 이어진 창의 산출물 발표대회에서는 영재학급 학생 6명이 '초플로이드 빛의 속도 측정하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한 부력의 원리 조사하기', '미술작품을 통해 알아본 화학의 원리', '리튬을 더 빨리 풀이리터', '트러스 이차 구조는 튼튼한 까?', '새로운 보드게임 만들기' 등 그동안 연구해온 과제를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영재학급 학생들의 창의성과 미래 여성 과학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줬다.

영재학급 정보 학생은 "창의 산출물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탐구 방향을 바꾸고 설계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탐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영재교육과 창의 산출물 발표대회는 성취기준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진로는 물론, 과학적 소양이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용성 기자 as@

성남·세종시 등 16곳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여성가족부는 서울 강동·서초·송파구,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화성·양주시, 강원 횡성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16곳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하면 양성평등·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기가 지정된다.

올해 재지정 심사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 20곳 가운데는 서울 도봉구, 경기 안산·안양시, 강원 동해시 등 14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76개로 확대됐다.

신규·재지정 지자체는 앞으로 여가부와 함께 내년 1월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하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가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실시, 지자체 공무원·시민단체 등에 정책형성 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발표·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터 매년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해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여기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모델적으로 추진해 온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를 담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내년 3월 '다문화이주민+센터'

시범 운영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재외동포 등도 다문화이주민 플라센타에서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방안'을 보고했다.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늘어남에 따라 지원 사업이 확대됐으나 관련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외국인복지지원센터(고용노동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등 대상별로 분산 운영돼 수요자마다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임시 지원센터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 플라센타'를 설치하고 통합적인 다문화가족·외국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구제책으로는 정책대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활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다. 협업센터는 하나의 공간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서 원하는 인력 양성

영종국제물류고, 금융NCS 1종 자격증 1,2학년 8명 취득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교장 최복수)는 2016년 인건비 증가 추세로 인건비 절감에 맞춰 금융NCS 1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금융NCS 1종 자격증 9명 응시 1, 2학년 8명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금융NCS 1종은 은행에서 각종 영업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은행 영업업무는 창구사무원, 기업영업, 카드영업, PB영업 외환무역금융 등 개인 또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업무이다.

금융NCS 1종은 파트A(창구사무원, 기업

영업, 카드영업), 파트B(PB영업, 외환무역금융)으로 나뉘어져 있고 영종국제물류고에서는 파트A에 대한 방과후학교를 진행한 결과 7명의 학생이 파트A(창구사무원, 기업영업), 파트B(PB영업)를 통해 금융영업능력 중 창구사무원, 기업영업, 카드영업 우수, 양호 등급을 취득했고 특히, 1학년 박승민 학생은 파트A(창구사무원, 기업영업, 카드영업), 파트B(PB영업, 외환무역금융) 모두를 통해 금융영업능력 3급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파트A시험의 경우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 통과율이 28.65%인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9명 응시 중 8명이 합격하여 88.9%의 합격률을 보였다.

인용성 기자 as@



자신의 특기 살린 다양한 모습들

인천부일초 '부일 푸른 꿈☆가꾸기' 학예 발표회 개최

인천부일초등학교(교장 김선민)에서는 지난 11월 24일 학예 발표회 '부일 푸른 꿈☆가꾸기' 동아리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각 학급에서 준비한 학예 발표회를 동아리 발표회를 더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학급별 학예발표회는 학생들마다 자신의 특기를 살린 다양한 무대로 재워졌다.

각 학급에 배정된 시간은 50분, 학생들은 그 시간 안에 그동안 갈고 닦은 합창 공연과 무용발레 연주 등을 마음껏 펼쳤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큰 신수 없이 공연을 마치고는 한마음으로 응원했

다. 이어 교내 동아리와 방과 후 학교 부서들의 공연이 열렸다.

특히, 난타 동아리의 박익은 타악기 공연이 시선을 끌었다.

무대를 가득 메운 북소리와 절도있는 퍼포먼스에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방송댄스, 음악놀이부, 우쿨렐레부, 뮤지컬부도 볼거리를 선사했다.

김선민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꿈과 역량을 기르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학예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용성 기자 as@

내년 국가공무원 6023명 뽑는다

인사처, 공채 선발인원 사전예고...부처 선발수요 초과해 결정

정부가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선발 인원을 6023명으로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규모를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총 5372명 보다 651명(12.1%) 늘었다. 이는 본 공고 기준 1981년 6870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인사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처 선발수요를 초과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83명(외교관보 45명 포함), 7급 730명, 9급 4910명이다. 5급 공채로는 행정직 235명, 기술직 64명, 지역구분포지 39명, 외교관보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7급에서는 행정직 530명, 기술직 168명, 의무영사직 22명을 각각 선발한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늘린 9급 공채는 행정직 4508명, 기술직 402명을 뽑을 계획이다.

장예인(7·9급)은 발달장애우지원비율(3%)의 2배가 넘는 6.5%(289명)를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 대상 공채도 법정 의무

선발비율(2%)을 초과한 2.7%(133명)를 선발한다.

내년도 국가직 공채는 각 부처의 인력운영 상황을 선발 수요에 반영해 중요성이 높아지는 재난관리분야에 5급 방재안전직렬을 최초로 선발해 지진·대중·화재·환경요원 등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계획이다. 또 광범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대응해 7급 공채직렬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16명 늘렸고 출입국관리직은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등의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해 7급 20명, 9급 190명으로 확대했다. 교정직 공무원도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 등을 고려, 9급 선발인원을 지난해보다 520명 늘어난 957명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2년간 공채선발인원을 확대한 영항 0명, 의무영사직 22명을 각각 선발한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늘린 9급 공채는 행정직 4508명, 기술직 402명을 뽑을 계획이다.

장예인(7·9급)은 발달장애우지원비율(3%)의 2배가 넘는 6.5%(289명)를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 대상 공채도 법정 의무

참담동 도심형 몰카주력
이천도시 신원아침도시 마인 근린생활시설 분양안내

충당동의 대박!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치원 입점

SAT수업 입점

여학원 입점

방과후학교 입점

국기호보 상권

참담대표상가 신원아침도시 마인

02) 540-1160